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적실한 '독서치료' 연구와 강의를 위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for Relevant Study and Lecture on 'Bibliotherap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송 승 섭(Sung-Seob Song)*

목 차

- | | |
|------------------------------|------------------------------------|
| 1. 서론 | 3. 2 현황 및 분석 |
| 2. 독서치료 관련 선행 연구와 문제의 제기 | 4. 독서치료 관련 연구 및 강의를 위한
발전 방향 논의 |
| 3. 독서치료 관련 대학생들의 인식 현황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 1 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제한점 | |

초 록

이 연구는 S여대 문헌정보과 2학년생 4개 반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로써 먼저, 독서치료의 경험 여부 및 그 시기, 독서치료 자료의 장르 선호도, 독서치료 과목의 효용성, 도서관 업무의 적용 가능성, 독서치료를 위해 보충해야 할 학문 분야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 조사 내용 분석과 강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과정을 교과목으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with four classes of sophomore majoring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S woman's college, with a questionnaire, firstly to research the students' recognition of their experience on bibliotherapy and the time, their preference of the materials' genre for the bibliotherapy, usefulness of the 'bibliotherapy' subject, apply possibility into library work, and the field of science that must be supplemented for the bibliotherapy. Secondly, a direction of development is presented analyzing researched contents and lecture experiences, centering on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mplemented and prepared in studying or lecturing the course of bibliotherapy as a school subject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ereafter.

키워드: 독서치료, 독서요법, 독서교육, 독서심리, 독서상담, 문학치료

Bibliotherapy, Biblioeducation, Bibliopsychology, Bibliocounseling, Literatherapy

* 통일부 북한자료실장, 명지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강사(libsong@unikorea.go.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3월 11일

1. 서론

10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중에 지금은 정년퇴임하신 창사 이춘희 교수님을 뵈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수업 자체에 대한 기억보다도 사석에서 몇 마디 던지신 가르치심이 아직까지 뇌리에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각인된 부분이 있다면 “논문을 쓰더라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에 가까운 말씀이셨다. 논문에 있어서 창의성 못지않게 사회적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독서를 통해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다든가 또는 도서관이 이런 운동에 앞장 선다든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씀이셨지만 당시의 연륜으로는 그냥 흘러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따금 독서 캠페인이나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는 막연하게나마 그 가르침의 의미가 되새겨지곤 했다.

이후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다시금 논문의 사회적 기여도를 환기시킨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이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화두의 중심에 소위 ‘새로운 글쓰기 문화’를 이끌어 낸 김정근 교수가 있지 않았나 싶다.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등 다수의 저작과 논문을 통해 사회 과학의 탈식민성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 내고, 우리 학계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이 그것이었다. 곧 학문의 현실 적합성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우리 학계의 현장인 도서

관계를 놓고 볼 때, 사실 논문의 사회적 기여도는 현실 적합성을 담보로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던 차에 최근 2-3년 전부터 문헌정보학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독서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소위 우리 분야에서도 ‘학문의 임상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일로써 필자는 3년 전부터 한 대학에서 독서치료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다. 평소 독서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했던 관계로 이 과목에 흥미를 가지면서도 “왜, 책을 최대의 무기로 삼는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과 도서관 사서들이 독서 관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의문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강의 진행과정에서 파악된 논문을 통해 독서 관련 연구가 임상성을 띤다는 점에서 가볍게 논의하거나 취급하기는 쉽지만, 연구다운 연구를 위해서는 그 학제적 성격과 전문성, 그리고 조사 범위와 연구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최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독서치료의 경우는 실험적 성격과 그 임상성의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 연구 자체가 조심스러운 면이 많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논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서 관련 연구가 그리 달가운 주제는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한 논문의 사회적 기여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독서 문제는 단순히 문헌정보학의 연구 지평을 넓히고 사

회적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 이상의 분명한 당위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문헌정보학도 독서문제를 통해 일상의 현장과 삶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발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 이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은 절박함으로 다가 온다.

이상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독서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개척자적 연구가 있었다. 독서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이루어졌고, 실험적 연구 성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관련 강의를 진행하면서 독서치료에 관한 우리 분야의 적실한 강의 도구가 부족하고 실제적인 연구 성과에도 미흡함을 느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서치료 강좌를 하게 되면서 느낀 교과과정의 문제와 학생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생각하게 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독서치료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현황을 밝히고, 좀 더 문헌정보학분야에 적실한 강의 도구를 개발하고 연구 방향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필자가 출강한 S여대 문헌정보과 2학년생 4개 반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대학생들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밝히기 위해 먼저, 독서치료의 경험 여부 및 그 시기, 독서치료 자료의 장르 선호도, 독서치료 과목의 효용성, 도서관 업무의 적용 가능성, 독서치료를 위해 보충해야 할 학문 분야 등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 이 조사 결과와 필자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과정을 교과목으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 발전 방향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2. 독서치료 관련 선행연구와 문제의 제기

독서치료라는 용어는 독서요법(bibliotherapy)이라는 말을 비롯하여 독서상담(bibliocounseling)과 독서교육(biblioeducation), 독서심리(bibliopsychology), 개인그룹치료(tutorial group therapy), 도서관 치료학(library therapeutics), 문학치료(literatherapy) 등 다양한 언어로 쓰여 지고 있다. 비슷한 용어이지만 그 어원이나 발생 배경을 보면 차이가 적지 않다.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 필요한 개념만 정의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ALA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독서치료는 “정신적 정서적 장애와 사회적 부적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계획되고 수행되는 직접적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의 보조물로서 도서 자료와 다른 읽기 자료의 이용”을 말한다(Young 1983, 2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독서치료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학문 분야별 여러 정의는 이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차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독서요법’이라는 말은 ‘독서치료’와 같은 용어로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독서요법은 독서치료에 비해 포괄적이고 학문적으로 정제된 어법으로 보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일본식 표현방식으로 생

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했다.

국내에서의 독서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타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독서치료의 원리와 같은 이론적 배경은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논의와 관련 있는 부분만 탐색하고자 한다.

독서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학문 분야는 교육학 부문이었다. 교육학 분야의 필자는 주로 사범대학 출신이 많은데 이는 독서치료가 교육 현장에서 인성 교육과 학생 지도 및 상담 차원에서 많이 행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최초의 연구는 1960년대 김병수(1968)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김동국(1974), 1980년대 박동연(1981)과 윤달원(1987)으로 이어졌는데, 독서치료가 연구대상의 심리적 발달적 측면에 치료적 영향을 미쳤는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 중 윤달원은 특히 독서치료에 관한 이론과 임상사례, 외국의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기초를 제공하는데 공이 컸다. 이와 같은 교육적 측면에서 독서치료를 Shepherd와 Iles(1976)는 “교사와 사서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 자료의 내용에서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자아상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학 분야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상담과 생활 지도의 접근 방법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개척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문헌정보학계도 1970년대부터 이 분야를 개척해 온 손정표(1977), 그리고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치료 적용가능성을 연구한 장귀녀(1985)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연구를 시작한 변우열(1988)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 분야는 직접적으로 장서를 관리하고 도서관을 통해 치료 자료를 이용시킬 수 있다는 학문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한 한윤옥¹⁾과, 아동문학을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룬 유소영(2001)의 저작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독서클리닉의 개념을 도서관 현장에 적용한 한복희(2003), 그리고 ‘정신보전사서’라는 새로운 개념과 사례연구 중심의 독서치료 과정을 개발한 김정근(2003)과 부산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연구는 이 분야의 문헌정보학 연구의 방향을 짚어주고 있다. 현재 송영임(2003)의 연구 등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미 검증된 바 있는 의학도서관에서의 활용과 의학사서의 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 번째로 위의 두 분야에 비해 오히려 그 철학적 역사적 깊이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우리가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문학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대체로 아동문학 분야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현재 각종 교재 출판과 강연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김현희(2001)는 아동문학 중심의 독서치료를 연구해 왔으나, 그 이전에 독일문학 전공의 변

1) 한윤옥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펴낸 상황별 독서목록(1999, 276p) 편찬에 책임자로 참여 했으며,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한윤옥 2003).

학수(2002), 이화영(2002) 등 많은 연구자들도 깊이 있게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변학수는 치료로서의 문학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4년 1학기부터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문학치료학과를 개설하여 독서치료의 과학적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문학과 독서 자료의 중점을 둔 정의로서 Berry(1978)는 “독서치료는 조력자와 참가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이루는 기술이며, 상호작용은 가능한 한 넓은 의미에서 문학작품을 같이 이해하고 나누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시에서부터 단편소설, 자서전, 일기, 생활사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문학적 형태를 포함한다”고 하였다.²⁾ 이 분야는 치료의 직접적인 도구를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 분야 연구도 깊게 있게 지켜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크게 3개 학문분야의 대표적 저자와 특징을 소개한 것은 각 학문별 특징과 연계되어 분야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가 학제적 연구로 진행되어야 좀더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각 분야 공히 독서치료에 대한 역사적 학문적 기반이 부족하고 연구자도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상징

적인 최근의 예로, 국내의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곽금주 2003)도 이 세 분야를 지원해야 할 심리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향후 이 독서 문제와 관련된 학제적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본 연구의 현황분석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장귀녀의 경우, 국내의 병원도서관 45곳의 실무자와의 면담과 질문지 배포를 통해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실시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써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재연(2002)은 아동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의 활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최근에 황금숙(2003)은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독서치료 교육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헌정보학의 역할에 대하여 문헌정보학과 교수진, 연구진, 도서관 현장사서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배우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독서치료 과목을 수강한 후에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다른 연구와 차

2) 문학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 변학수(의료정책포럼 2003년10월호)는 “문학치료는 협의의 의미에서 보면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Kittler(Kitler)와 Munzel(문첼)의 정의에 따르면 문학치료는 의학이나 정신과 및 심리치료적 진료에 수반되는 대안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문첼이 책읽기 자체만으로도 문학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코르넷(Cornett)은 문학치료의 개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해하고 있다. 코르넷이 의미한 문학치료는 계획된, 환자의 일정한 문제를 겨냥한, 그야말로 목적의식을 갖고 전개되는 치료를 뜻하고, 문학치료에서 구체적인 문제라고 보는 병이나 병적 소인으로는 1. 사회적 불안, 시험에 대한 불안 2. 우울증 3. 분노, 공격성 4. 성적 장애 5. 심리장애적 심장병 6. 자기불신 7. 술, 담배, 마약중독 8. 이성 문제 9. 언어장애 10. 부적응아 등이다.”라고 정리하였다.

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강의와 연구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려 하였음을 밝혀둔다.

로 좀 더 적실성 있는 독서치료관련 연구와 강의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객관적인 강의 환경과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3. 독서치료 관련 대학생들의 인식 현황 분석

3.1 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질문지 형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질문지는 독서치료 관련 인식도 및 현황을 5점 척도로 체크하는 방법과 개별 사안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수업과정에서 지득된 사실과, 학생들과 토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부록참고). 2003년 12월 3일과 4일 양일 동안 S여대 '독서교육심리' 수강생 4개반 16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배포가 이루어졌다.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출한 35명을 제외한 결과, 유효 질문지는 126장으로 회수율은 78.3%에 달했다. 수집된 자료의 현황은 모두 백분율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연구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설 검증을 위한 여타의 통계적 처리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이거나 대학생 일반의 인식 현황으로 보는데는 제한이 따른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통한 현황과 필자의 강의 경험을 토대

3.2 현황 및 분석

3.2.1 독서치료 일반에 대한 인식 조사

(1) 독서치료의 효용성

지금까지 독서치료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은 많은 개별 사례 연구로써 검증된 바 있지만,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실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표 1>은 독서치료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책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단히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14.3%, 대체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50.8%로, 65.0% 이상의 학생들이 책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의 치료적 성격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4%에 불과해, 책이 정서적으로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개별적인 경험으로도 상당 부분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서치료의 경험시기

독서치료의 경험 시기를 묻기 위하여 "책이

<표 1> 책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 정도

단위: 명

대단히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거의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18(14.3%)	64(50.8%)	41(32.5%)	3(2.4%)	0(0.0%)	126(100.0%)

아픈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로 어떤 시기였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대체로 초등학교(23.8%)부터 대학교(23.0%)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독서치료의 경험은 어느 한 시기에 걸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유치원 시절은 대체로 기억을 잘 할 수 없는 시기여서 응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서도 고등학교(36.5%) 시절이 가장 높았는데 그 것은 이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춘기를 겪게 되고, 대학입시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 개인적으로 신상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아를 다루는 임상적 차원의 독서치료보다도 발달심리에 따른 예방적인 독서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는 또한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개별 연구 사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통계 자료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독서치료 자료의 장르 선호도

독서치료를 위한 문학작품의 장르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 자료는 주로 어떤 장르였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35.7%가 소설을 통해 독서치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층에 따라 소설의 역할을 동화(15.9%)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동화의 선호도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1.6%가 소설류를 대단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서치료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 이입이 일어나고, 자기 동일시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통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므로 독서치료 하면 소설이라는 이해에 근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3>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눈에 띄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필(수기 및 넉픽션 포함)이 독서치료의 주요 장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치료에서 수필이라는 장르의 가치는 그다지 인정되지 못한 편인데,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수필과 같은 에세이 류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

<표 2> 독서치료의 경험 시기

단위: 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	계
1(0.8%)	30(23.8%)	20(15.9%)	46(36.5%)	29(23.0%)	126(100.0%)

<표 3> 독서치료 자료의 장르 선호도

단위: 명

소설	시	동화	수필(수기)	만화	기타	계
45(35.7%)	11(8.7%)	20(15.9%)	42(30.9%)	5(4.0%)	6(4.8%)	126(100.0%)

목록 선정과정에서 소설류뿐만 아니라 수필류와 같은 도서선택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 치료에 대한 응답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에 대한 치료적 선호도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만화가 4.0%, 기타 장르가 4.8%를 차지하고 있어 문학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타 장르를 조사해 본 결과, 기독교 서적, 불교 서적 등 종교 서적과 위인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학의 심미적 기능을 원시적 종교 기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과가 인정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치료 자료 개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4) 독서치료 자료 이외의 매체 선호도

독서치료(시치료 포함) 이외에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영화치료, 기타 여러 가지 이름의 예술치료(각종 놀이치료 포함)들이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분야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독서치료에 쓰이는 '문학'이 글자로 쓰여진 말이라면, 그 말을 영상으로 옮기면 그림이나 영화가 되고, 동작으로 옮기면 연극, 소리로 표현되면 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들 매체 상호간의 상관성은 대

단히 높다. 실제 그 간의 연구 결과도 독서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가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이와 성별, 증상과 취향에 따라 독서치료 과정에서 다른 매체의 치료를 병행하거나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는 책 이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로, 음악치료(37.3%)와 영화치료(35.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각 오디오와 비디오를 대표하는 장르인데 TV시청(19.0%)을 포함하면 확실히 시청각을 통합한 비디오 매체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감각 세대라고 부르는 현 세대에 맞게 독서치료 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비디오와 오디오의 자료 선정과 확보, 그리고 자료 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통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술치료의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고 활용되고 있지만 그 친밀도나 접근성으로 인해 대개 어린 나이층에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자료(2.4%)의 경우에는 연극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극도 소수이긴 하지만 치료 활동의 중요성은 높은 만큼 이 역시 관심의 범위 속에 놓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2. 2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독서치료 강좌 수강에 관한 인식조사

(1) 독서치료 과목의 실용성 평가

다음은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독서치료

〈표 4〉 책 이외의 치료매체 선호도

단위: 명

음악	미술	영화	TV(드라마)	기타	계
47(37.3%)	7(5.6%)	45(35.7%)	24(19.0%)	3(2.4%)	126(100.0%)

강좌 수강생들의 독서치료 과목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이 과목의 실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이수한 ‘독서치료(3학점)’ 과목이 향후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6.4%,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59.5%에 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이 63.9%에 이르러, 부정적인 답변(거의 도움 안 됨 0.8%)을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서치료 과목의 강의 자체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향후 사회생활 과정에서 독서치료 과목에서 배운 것이 효용성이 있겠는가를 직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학생 대다수가 독서치료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 독서치료 과목을 이수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독서치료 과목이 상당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그러면 독서치료의 어떤 부분, 어떤 요소가 향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1%가 ‘자기치료’에 우선적인 기대를 갖고 있고, 다음으로 ‘타인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31.7%나 되었다. 이처럼 독서를 통해 자기치료나 타인치료 등 치료 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73.8%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은 독서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2.7%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문학의 여러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했고, 8.7%의 응답자는 심리학 등 관련 학문을 이해하는데 독서치료가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독서치료 과목이 도서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대학에서 이수한 문헌정보학과의 독서치료 과목이 도서관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향후 사서로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과목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5> 독서치료 과목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도움의 정도

단위: 명

대단히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거의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계
8(6.4%)	75(59.5%)	42(33.3%)	1(0.8%)	0(0.0%)	126(100.0%)

<표 6> 독서치료가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요소

단위: 명

자기 치료	타인 치료	문학의 여러 기능에 대한 이해	심리학 등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	기타	계
53(42.1%)	40(31.7%)	16(12.7%)	11(8.7%)	0(0.0%)	126(100.0%)

〈표 7〉에 따르면, 대단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16.7%,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43.6%로 전체 60.3%의 응답자가 향후 사서로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1.6%에 그쳐 독서치료가 도서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독서치료 강좌 수강생들은 독서치료가 향후 사서로서 도서관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독서치료가 도서관의 어떤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8〉에 따르면, '아동지도' 분야 서비스가 41.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소한 차이로 '독서상담'이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독서지도(15.1%)보다는 '카운셀링', 또는 '치료'의 의미가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는 '독서상담'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독서지도'와 '독서치료'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구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에 대

한 아동지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독서치료가 아동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발달적 학습과정에 독서치료가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 장서관발이나 자료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3.2%로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서관구성이나 장서관발에 대한 개념 이해나 그 실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나 이해가 깊지 않은데서 오는 판단으로 보여 진다.

(3) 문헌정보학과에서의 독서치료 과목 개설의 적절성

앞의 조사 결과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향후 사회생활이나 도서관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서치료 과목이 상당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곧 독서치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강한 기대와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독서치료 과목을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단히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35.7%,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41.3%로, 전체 77.0%의 응답자가 문헌정보학의 일부로서

〈표 7〉 독서치료 과목 이수가 도서관 업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

단위: 명

대단히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거의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21(16.7%)	55(43.6%)	48(38.1%)	2(1.6%)	0(0.0%)	126(100.0%)

〈표 8〉 독서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 업무

단위: 명

독서지도	독서 상담	아동 지도	장서관발	기타	계
19(15.1%)	51(40.5%)	52(41.2%)	4(3.2%)	0(0.0%)	126(100.0%)

'독서치료' 강좌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적절하다는 견해는 전체 4.0%에 그쳐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독서치료 강좌 수강에 대한 거부 반응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학과목 개설을 고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독서치료 강좌의 학제성

독서치료 강좌도 학제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분야여서 문헌정보학적 지식만으로는 가르치는 쪽이나 배우는 쪽에 다같이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표 1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도움이 필요한데, 배우는 입장의 학생들은 보충해야 할 학문분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선순위 별로 조사해 보았다. <표 10>은 <표 10>에 명시된 5개의 학문분야의 보충 필요성을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에서 5순위 까지 표시하게 한 것으로 그 중 1순위에 오른 학문분야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심리학이 46.8%로 단연 높았고, 이어 상담학(상담기술)이 26.2%로

나타나 독서치료 강좌에 가장 필요한 학문은 심리학과 상담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15.1%, 그리고 교육학과 의학은 다소 낮게 8.7%와 4.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설문문에 있어서는 학문 분야의 분류에 대한 정확성과 이해도가 선행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구분상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표 10>은 중요도에 있어서 1순위만 표로 집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학문 분야별 비중을 다룬 중요도 평가에서는 그 순위는 같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11>은 1순위에서 5순위까지의 등간 점수를 1점으로 하여 1점에서 5점까지의 중요도 순(가중치)에 따른 득점 총계를 학문 분야별로 합산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표 10>과 <표 11>을 비교해 볼 때, 중요도 순은 똑같이 나타났지만 독서치료를 위해 보충해야 할 타학문 분야의 전체 비중의 편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심리학과 상담학의 비중이 다소

<표 9>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 과목 개설의 적절성

단위: 명

대단히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약간 부적절	대단히 부적절	계
45(35.7%)	52(41.3)	24(19.0%)	5(4.0%)	0(0.0%)	126(100.0%)

<표 10> 문헌정보학과에 독서치료 강좌를 개설한 경우 보충해야 할 타학문 분야

단위: 명

심리학	문학	상담학	교육학	의학	계
58(46.0%)	19(15.1%)	33(26.2%)	11(8.7%)	5(4.0%)	126(100.0%)

<표 11> 독서치료를 위해 보충해야 할 타 학문 분야의 비중

단위: 점

심리학	문학	상담학	교육학	의학	계
516(27.3%)	375(19.8%)	455(24.1%)	307(16.2%)	237(12.6%)	1,890(100.0%)

높고, 문학이 중간 수준이며, 교육학과 의학이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순위의 중요도와 5순위의 중요도 비중의 편차가 14.7%에 그쳐 학문적으로 전체 중요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에 제시된 학문 분야가 대체로 관련이 있고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4. 독서치료 관련 연구 및 강의를 위한 발전방향 논의

앞서 독서치료 관련 대학생들의 인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독서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5.0% 이상이 책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시절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시절이 다소 높았다. 독서치료 자료로는 소설류와 수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책 이외에 음악이나 영화 및 TV시청도 상당부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독서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은 대단히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인과 관계가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행 연구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 집단에서 증명된 것이 좀 더 큰 규모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다. 독서치료의 경험 시기가 초등학교부터 대학 시절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년

별 독서치료 목록 개발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설류에 치중한 독서치료 목록 개발에서 벗어나 수필류에 대한 자료 분석과 연구, 목록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독서치료 강좌 수강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에서 독서치료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77.0%의 응답자가 그 적절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자기치료와 타인치료 그리고 문학의 여러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도서관 업무에도 대체로 독서치료 과목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동 지도와 독서 상담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독서치료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타학문 분야는 심리학, 상담학, 문학, 교육학, 의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독서치료 강좌를 문헌정보학과에 개설하는데 대한 인식 조사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좌의 학제성으로 인한 무리가 따르고 있다. 다음은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향을 살펴 본 것이다.

첫째, 독서치료 강좌에 필요한 적정 강의시간 확보에 문제가 있다. 필자의 강의 경험으로 볼 때, 1학기 3학점으로 독서치료 전반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한 학기 과정 속에서 독서치료의 이론적 기초와 발전과정, 그 유형과 가치, 절차 및 과정, 자료의 선정과 관리로부터 단순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실습하는 일정이

포함된다. 현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설 교육원에서조차도 독서치료사2급 수준의 자격증 과정을 1개월 100시간 내외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는 최근에 집중된 독서치료와 관련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과와 독서치료 교육현황은 대단히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독서교육 관련 교과목조차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11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34.4%에 달한다(황금숙 2003, 216-7). 2년제 대학의 경우는 독서관련 과목을 특성화하여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몇몇 있는데 S여대의 경우, '독서지도', '독서교육심리', '논술독서지도법', '장서개발론'을 묶어 12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대학의 경우, 독서관련 강좌를 거의 포기하는데 있고,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그 형편은 낡은 편이지만, 학문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격증 위주의 실용성을 강조하여 속성으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와 독서교육이 사설교육원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 기반 확충과 적정 강의 시간의 확보, 대학원에서의 독서 관련 연구 지원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에서 좀 더 밀도 있는 독서치료 강의를 위해서는 관련된 다른 학문의 이해를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독서치료 과목을 공부하기위해 보충해야 할 타학문 분야로 심리학, 상담학, 문학, 교육학, 의학이 있

었다. 현재 주교재로 쓸 수 있는 자료는 '독서치료(2001)'라는 단행본이 거의 유일한데 이 자료 또한 Doll(1997)과 Hynes(1994)에 의해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간된 2권의 개론서를 이룬 중심으로 엮어낸 것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필자는 타학문 분야의 이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주 교재 외에 10여권이 넘는 부교재를 사용하고, 인터넷의 활용도³⁾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표 12〉는 2년제 대학의 독서치료와 관련된 강의를 위해 필자가 선택한 교재이지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교과과정에서 독서치료를 위한 초기 진단과 병증의 발견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법(지능검사, 독서력 진단테스트, 성격검사, 심리검사 등)과 같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과정의 자료 활용 사례가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대학원 2002)을 통해 잘 나타나 있지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의를 위한 교재 및 각종 측정도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학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일부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추진해 온 독서요법연구회(황금숙 2003, 203-4) 같은 학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담론을 조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홈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그 주변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제적 복합성과 문헌정보학의 영역

3) 가장 잘 알려진 이영식목사의 독서치료관련 포털 사이트(<http://www.bibliotherapy.pe.kr/>)[cited 2004. 1. 27]외에도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는 수십개의 관련사이트가 있다(황금숙 2003, 217참조).

〈표 12〉 S여대 독서치료 강의 교재 목록

교재구분	목 록
주교재	독서치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연구회 편. 학지사, 2001. 227p. 독서요법. 황의백 편. 범우문고152, 범우사. 1996. 167p.(교재의 보충교재로 활용)
'심리학' 관련	심리학 통이 되는 책. 빅펜·사이콜러지 연구회편. 2002. p.230.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나카시니 요시오. 사계절 2000. 278p. 성격 심리테스트. 이태희 편저. 도서출판 참나무. 2001. 219p. 따귀 맞은 영혼. 베르벨바르테츠키 저. 장현숙 역. 도서출판 궁리, 2002. 303p. (*독서치료의 진단과 평가과정에 활용)
'상담학' 관련	동화로 열어 가는 상담이야기. 박성희 저. 2002. 227p.(*독서치료 전략에 활용)
보조 매체	마음이 아플 때 만나는 미술치료. 박승숙 저. 2001. 243p.(*미술과 영화치료 자료)
자료선정 과정	비블리오테라피. 조셉골드 저. 이종인 역. 북키앙. 2003. 384p. 책아, 우리아이 마음을 열어줘. 하재 저. 청어람미디어, 2003. 315p. 상황별 독서목록(아동, 청소년 편). 한국도서관협회 편. 1999. 276p. 독서치료의 실제. 김현희 외. 학지사. 2003. 586p. 독서치료와 어린이 글쓰기지도. 양재한 외. 도서출판 태일사, 2003. 280p. 신독서지도방법론. 손정표 저. 도서출판 태일사, 2001. 438p. 아동문학 어떻게 이용할까. 유소영 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470p. (*독서치료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부교재)

의 문제이다. 바로 앞에서 타학문 분야의 보충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헌정보학 나름의 연구 영역을 확고히 할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실제 독서치료와 관련된 학문 분야가 너무 많다는 것은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되지만 일견 독립적이거나 고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의미가 된다. 실제 선행 연구 과정에서 잠시 소개되었지만 경북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의 '문학치료학' 과정이 독어교육전공, 영어영문,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학, 아동가족학의 협동과정으로 개설된 것만 보더라도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⁴⁾ 협동과정은 문헌정보학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협동과정의 범위를 넘어 그 실재를 보면 교과편성도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그 만큼 독서치료는 그 방향에 따라 역사와 전문성이 다른 학문분야가 되고 만다. 의약학 분야에서 보면, 가정의학 아래 임상행동의학이 있고, 여기에 가족건강, 가족치료, 청소년의학이 있다. 가족예방의학과 스트레스의학에도 관련이 있다. 상담학에는 목회상담학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 심리학도 넓게는 의약학 분야의 정신과학에 속하고 그 하위 개념의 분석심리학 하에 자아

4) 주된 내용은 변학수교수가 대표로 있는 문학치료학 홈페이지<<http://www-2.knu.ac.kr/~lt/>>[cited 2004. 1. 27]에 있다. 이 외에도 건국대학교 정운채교수의 문학치료학홈페이지도 참고할 만 하다 <<http://www.kkucc.konkuk.ac.kr/~ucjeong/>>[cited 2004. 1. 27].

5) 교과 편성의 예로써 '정신의학의 역사와 역동정신의학,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연극치료, 꿈과 정신치료, 문학치료 임상실습' 등 모두 4학기 과정에 36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심리학, 자기심리학, 대인관계심리학, 발달심리학 등이 있고, 뇌과학 분야에도 신경심리학이 관련되는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교육학분야도 가정교육학과 교육심리학 등 그 범위가 적지 않다.⁶⁾ 오히려 학문별 연구 분야의 분류표로 보면, 문헌정보학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독서치료가 미국에서 발전한 과정을 보면,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요인과 전쟁의 영향으로 19세기 이후 미국의 병원도서관을 통해 독서치료는 발전해 왔다. 결국 최종적인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위의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과 그 현장을 공고히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저변을 병원도서관과 의학 사서에 가서 찾는 일이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⁷⁾ 이미 많은 대학에 의과대학도서관이 있고, 일부 병원도서관도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병원도서관의 설립과 그 활용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임상적 독서치료와 발달적 독서치료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발달적 치료는 그야말로 인간의 정상적인 심신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누구나가 부딪히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병원도서관 뿐

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치료의 경우, 정신병, 성격이상,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언어장애, 비행, 성인의 제문제 등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분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논문을 보면, 마치 문헌정보학에서 또는 도서관사서가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짧은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분야는 문헌정보학의 전문성을 살려 독서치료 목록을 개발하고, 예방의학차원에 발달적 독서치료를 도서관 현장에 적용시키고, 각급 학교에 그 프로그램과 치료목록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소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영문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Joseph Gold(2001)가 이 시대의 도서관과 사서들을 위해 던진 말이다. 이 논문의 결론과 관련하여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므로 여기에 옮겨 놓았다(이종인 2003, 333-4).

오늘날의 도서관은 한림미달이다. 오늘날의 사서는 책을 여전히 사랑하긴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사정은 많이 좋아졌다. 사서들은 잘 훈련 받았고 지식이 풍부하며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런저런 일을 능숙하게 해낸다. 하지만 그들은 좀더 개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널리 책읽기를 권장하고 도서관을 위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자신들의 일과 광범

6) 여기에서 언급한 학문분야의 분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 검색을 참고한 것임
(<http://www.krf.or.kr/nkrf/index.php>)[cited 2004. 1. 27].

7) 우리나라는 의학사서를 배출하는 기반자체가 약하지만, 상명대학교에서와 같이 의학 관련 기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3학점 3개강좌: 의학 및 과학정보원(Information Sources of Medical Science & Technology), 의학도서관(Medical Libraries), 의학용어학(Medical Terminology)).

위한 독서 자료를 널리 선전해야 한다. <중략> 사서들은 책을 잘 알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 노년과 죽음, 질병, 이민, 고용, 성장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해 관해 특별한 책의 묶음을 제공할 수 있다. 사서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자료를 개방하는 특별주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또 낭독회도 개최하고 책 전시회도 개최하고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과 그 책에 관해 토론 할 수도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강의를 듣는 독서치료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서 먼저, 독서치료의 경험 여부 및 그 시기, 독서치료 자료의 장르 선호도, 독서치료 과목의 효용성, 도서관 업무의 적용 가능성, 독서치료를 위해 보충해야 할 학문 분야 등 학생들의 인식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독서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5.0%이상의 대학생들이 책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기별로 보면, 초등학교(23.8%)부터 대학시절(23.0%)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고등학교시절(36.5%)이 다소 높았다. 독서치료 자료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소설류(35.7%)와 수필류(30.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책 이외에 음악(37.3%)이나 영화(35.7%) 및 TV시청(19.0%)도 상당부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년별 독서치료목표 개발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설류에 치중한 독서치료 목

표 개발에서 벗어나 수필류에 대한 자료 분석과 연구, 목표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독서치료 강좌 수강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에서 독서치료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전체 77.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65.9%)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치료(42.1%)와 타인치료(31.7%) 그리고 문학의 여러 기능을 이해(12.7%)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도서관업무에도 대체로 독서치료 과목이 도움을 줄 것(60.3%)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아동지도(41.2%)와 독서상담(40.5%)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독서치료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타학문 분야의 중요도를 상대적 비중으로 종합해 보면, 심리학(27.3%), 상담학(24.1%), 문학(19.8%), 교육학(16.2%), 의학(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많은 대학에서 독서치료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졸업 후에 도서관업무나 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사 내용 분석과 필자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치료 과정을 교과목으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독서치료 강좌에 필요한 적정 강의시간 확보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 의 독서치료 교육 현황은 최근에 집중된 독

서치료와 관련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의 1/3정도가 독서 관련 교과목조차 개설되지 않은 형편에 이를 정도로 그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향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편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강의 시간을 확보하고 '독서치료사'도 사서자격증과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국가법에 의한 자격고시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지만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이 학칙제정으로 독서치료 관련 과목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학과 방침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졸업학점 이외에 이 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련 기초 및 교양과목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청강하거나 외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서치료에 대한 좀 더 밀도 있는 강의를 위해서는 관련 타 학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필자가 강의를 위해 선택한 교재 목록은 앞서 제시하였지만 대단히 부족하다. 독서치료 강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법과 같은 측정도구와 다양한 실습용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부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추진해 온 연구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 분과를 두어 현장 사서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담론을 조성하고, 현장 사서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홈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강의와 연구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제적 복합성과 문헌정보학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앞 선 연구 결과에서도 타 학문 분야의 보충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한편으로는 문헌정보학 나름의 연구 영역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학제성과 고유성의 한계가 문제로 남아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서비스가 사서에 의해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으로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서관 고유의 학문 영역과 그 현장을 공고히 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그 저변을 우리의 병원도서관과 의학 사서에게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우리 학문과 현장의 전문성을 살려 예방의학 차원의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치료목록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처럼 우리 학문분야에서도 소위 학문의 임상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했다. 논문의 사회적 기여도와 함께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치열한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상담심리 전문가나 상담심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쉽게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논문에서 제기된 바 있는 정신보건간호사와 같은 정신보건사서도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역시 대등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쳐야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서관 여건을 살펴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도서관계가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고 발전시킨다면 향후 보다 적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한국의 북스타트 시범운동 효과에 관한 연구(1): 3개월간의 효과 검증. 『2003년 북스타트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7-41.
- 김동국. 1974. 치료적인 독서지도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공격적인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부산교육, 176 (1974. 9). pp.197-200.
- 김병수. 1968.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5: 12-15.
- 김정근, 송영임. 2003.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4(1): 19-41.
- 김현희. 2001.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이론적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 67-92.
- 박동연. 1981. 독서의 진단과 치료. 『춘천교대 논문집』, 21: 5-21.
- 변우열. 1988. 비행청소년예방을 위한 긍정적 자아개념 육성방안. 『교육논문집』, 10: 135-150.
- 변우열. 1997. 비행청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도서관학논집』, 26: 131-168.
- 변학수. 2002. 치료로서의 문학: 독서행위와 치료적 전략. 『독일어문학회』, 17: 47-70.
- 손정표. 1977. 독서문제아의 치료적 독서지도 방법론. 『도서관』, 222: 20-30.
- 송영임. 2003.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연구: 독서치료적응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소영. 2001. 『아동문학 어떻게 이용할까』.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윤달원. 1987. 독서요법연구에 관한 개관: 사례연구 및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경상대논문집』, 26(2): 361-372.
- 이재연, 전소희. 2002. 아동삼당자의 독서치료 활용현황 및 인식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3): 39-60.
- 이종인 역. 2003. 『비블리오텔라피』. 서울: 북키앙.
- 이화영. 2002.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나타난 치료기능. 『헤세연구』, 8: 65-81.
- 장귀녀. 1985.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복희. 2003. 초등고학년의 독서부진아에 대한 독서치료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303-318.
-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5.
- 황금숙. 2003. 독서치료 교육현황과 문헌정보학의 역할.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erry, F. M. 1978. "Contemporary bibliotherapy: Systematizing the field," In R. J. Rubin(Ed.), *Bibliotherapy Soucebook*. AZ: Oryx Press. In M. Buber(Ed.), 185-190.

- Doll, B &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 Gold, Joseph. 2001. "Read for Your Life." Ontario: Fizhenry & Whiteside.
-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 A handbook" St. Cloud, MN :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Pardeck, John T. 1993. "Using bibliotherapy on clinical practice: a guide to self-help book. London: Greenwood Press.
- Shepherd, T. & Iles, L. 1976. "What is bibliotherapy?", *Language Arts*, 53: 569-571.
- Young, Heartsill ed by.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부록. '독서치료' 관련 인식조사 질문지

1.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책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

⑤-----④-----③-----②-----①

대단히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거의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2. 책이 아픈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로 어느 시기였습니까? ()

(1)유치원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생 이후

3.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 자료는 주로 어떤 장르였습니까? ()

(1)소설 (2)시 (3)동화 (4)수필(수기) (5)만화 (6)기타 _____

4.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 책이나 자료가 있다면 하나 이상 적어 주십시오.
(제목/저자) _____

5. 책 이외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 매체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1)음악 (2)미술 (3)영화 (4)TV(드라마 등) (5)기타 _____

6. 책 이외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 자료가 있다면 하나 이상 적어 주십시오.

7. 대학에서 이수한 '독서치료(3학점)' 과목이 향후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⑤-----④-----③-----②-----①

대단히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거의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8.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1)자기 치료(마음의 위안과 용기 등) (2)타인 치료(격려와 위로, 책선물 등)
(3)책(문학)의 여러 기능에 대한 이해 (4)심리학 등 다른 관련 학문에 대한 이해 (5)기타

9. 대학에서 이수한 '독서치료(3학점)' 과목이 사서로서 향후 도서관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⑤-----④-----③-----②-----①

대단히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거의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10. 독서치료(3학점) 과목이 도서관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봉사분야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1)독서지도 (2)독서상담 (3)아동지도 (4)장서개발(자료선택) (4)기타

11. "독서치료" 과목을 문헌정보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④-----③-----②-----①

대단히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약간 부적절 대단히 부적절

12. 문헌정보학에서 “독서치료”과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더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요도를(1,2,3……순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심리학(발달, 임상) () • 문학(아동문학 포함) () • 상담학(상담기법) ()
 - 교육학 () • 의학(임상심리치료 등) ()
13. 지금까지 읽어 본 책이나 접해 본 매체 중 심리치료 자료로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적어 주세요.(제목/저자)

14. “독서치료”를 위한 조언이나 수업과정 개선을 위한 건의 부탁드립니다.
